

“의재 선생의 예술향기 젊은 세대에 퍼졌으면”

‘광주시 문화예술상’ 허백련미술상 김병중 서울대 명예교수와 광주 “의재 선생처럼 공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예술가 되려 노력” 광주트라우마센터에 작품 기증... 2004년 비엔날레 참여

화가 김병중의 글과 그림을 따라 만나는 ‘예인(藝人)’의 초상은 아련하고, 감동적이다. 1999년 첫권이 나온 ‘화첩기행’은 풍성한 한국의 문화를 입체시킨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찾아 떠나는, 예술혼과 인문정신이 어우러진 ‘예술기행’이다.

특히 임방울(광산), 운주사(화순), 이난영(목포), 허련(진도) 등 그가 애착을 갖고 여행길에서 만난 전라도 출신 예인들의 삶은 우리에게 더욱 깊게 다가온다. 그림은 물론이고, 동아일보(미술평론), 중앙일보(희곡) 신춘문예에서 당선된 그의 유려한 글솜씨가 어우러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난 8월 정년퇴임한 김병중(65·서울대 미술대학 명예교수) 작가가 ‘2018 광주시 문화예술상’ 중 ‘허백련미술상’ 본상을 수상했다. 남원 출신으로 한국화의 맥을 잇는 그에게 ‘허백련’이라는 존재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닐 터였다. 시상식 참여를 위해 18일 광주를 찾은 김 작가를 만났다.

“의재 선생님은 화가로서도 유명했지만 동시에 인품의 향기도 뛰어나셔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화가셨습니다. 중국화와는 다른 자생적인 남화를 확립하며 새로운 미학을 일구내신 분이죠. 즉물적이고 말초적 감각만을 좇는 요즘 시대에 그의 삶의 방식은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세대는 의재 선생님을 잘 몰라요. 이번 수상이 저를 포함해 후배, 제자 세대들이 그분의 예술가적 향기를 글이나,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작가는 “최근 50여년전 문화 관련 각료였던 신학자 전성천 박사 부부가 의재 선생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무등산 춘설현까지 내려와 선생이 난초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낡은 흑백사진을 발견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화가의 풍모를 간직한 의재 선생의 모습이 화가로서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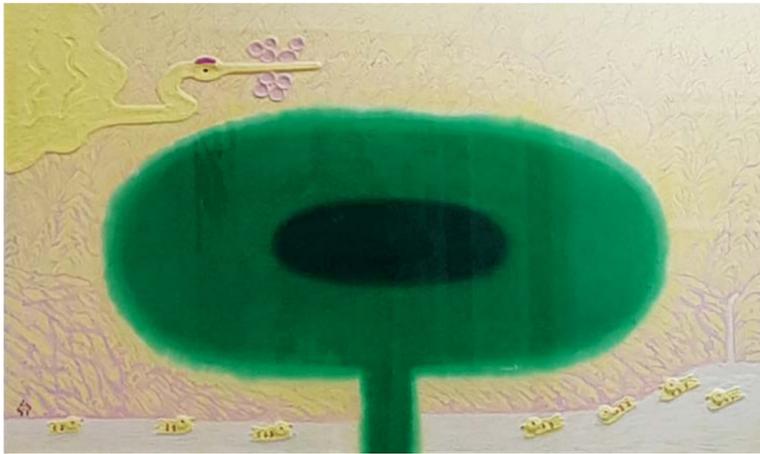
허백련 선생의 이야기 역시 ‘화첩기행’에 등장한다. 2001년 1월 신문에 실린 ‘신 화첩기행-춘설현(春雪峯)’에서 ‘j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은 “사시사철 대숲의 바람 소리와 계곡의 물소리 쉬는 법 없고 차창기 마르지 않는 무등산 마루에 ‘춘설현’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그림 그리며



18일 허백련미술상을 받은 김병중 작가.

살았던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의 산화를 가실까실한 붓질로 살렸던 무등산 도인이 춘설현을 세워 먹 같고 차나무 들보며 그곳을 오랫동안 우리 맛, 우리 그림의 터로 삼을 뜻을 세웠던 공간에서 그는 한국화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기도 한다. 또 1974년 ‘25시’의 작가 게오르규가 중심사까지 의재를 찾아와 ‘대숲의 바람소리를 뒤로 하고서 유유 자적하는 노인에게서 감동받고 간’ 사연도 소개한다. 글에는 그가 춘설현에서 그린 그림 두 장도 실렸다. ‘물 흐르는 소리, 얼음 내려앉는 소리, 눈 녹는 소리, 새싹 움트는 소리로 무등산이 소란하다. 봄은 남쪽하고도 무등산에 먼저왔다’라는 설명이 달린 ‘무등산에 봄이 왔다’와 의재 선생의 초상화다.

김 작가는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비엔날레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했던 1995년, 서울에서 열린 광주 비엔날레 창립 행사에 참여했고 200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70m 벽면에 대표작인 ‘바보 예수’ 시리즈



광주트라우마 센터에 기증한 ‘생명의 노래-오월산수’.



‘신화첩기행’에 실린 ‘의재 허백련 초상화’.

등도 전시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깊은 인상을 받은 광주트라우마센터에 대표작 ‘생명의 노래-오월 산수’를 기증했고 신문칼럼을 통해 그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이 시리즈는 서울대 앞 고시원에서 책을 쓰다가 연탄가스를 마셔 생사를 넘나들고 난 후 시작한, 휴머니즘과 평화를 표현한 작품이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두 부류예요. 오직 자기에 집중하고 명성을 드러내는 데 평생 열심인 사람

과 농민학교를 세웠던 의재 선생처럼 공(公)적인 요청에 부응하려는 이들이죠. 저도 작지만 경기도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김병중의 손가락그림학교’를 운영하고 병원 등에 작품 기증도 했죠.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인데 미술작품이 테라피 기능도 있으니, 기증 요청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의 작품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당시 선물로 증정돼 화제가 되기도 했고 중국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인 진르(금일)미술관 전시 때는 중국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때는 작품 ‘화려강산’이 비공개 회의장에 걸렸다.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아내인 소설가 정미경 작가다. 지난 2017년 암 발병 사실을 안 지 고작 한달만에 세상을 떠나버린 그녀는 영원한 그의 ‘인생 동반자’였다. 올해 1주기에 맞춰 유고집 ‘새벽까지 희미하게’(창비)가 출간됐고 그가 그리움을 담아 쓴 추도 산문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는 이들도 많았다.

개관까지 4년 넘게 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3월 문을 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문화명소가 됐다.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서서, 판에 박힌 듯한 문화공간과 다른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김 작가의 고집이 만들어진 결과로, 아담하지만 그 어디도 없는 독특한 외관을 갖춘 미술관은 인근 혼불문학관 등과 연계해 문화코스로 자리매김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자 오픈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21~22일 30일까지 송재영 기획전

“청년작가들을 만나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2018년도 입주자 오픈스튜디오를 21~22일 이틀간 마련한다. 또 입주기획자 송재영(타라제이)이 기획한 특별한 전시도 열린다.

지난 2016년 10월 광주시 남구 통기타 거리에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는 입주자의 창작활동지원, 청년 문화기획자 육성과 전시, 음악·공연 등 상호교류를 통한 청년예술인의 다양한 활동을 격려하는 공간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미술분야 김단비, 김수진, 김연호, 김윤정, 나수빈, 유상근, 정보은, 최나래 작가와 뮤지션 임주신(Bay), 영상단체 박픽처 컴퍼니, 연극단체 공연장작소 아라리엔, 송재영(타라제이)이 입주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송재영이 기획한 ‘The Sense of Life_삶을 불러 일으키는 감각’전이 21일부터 30일까지 센터 1층 문화카페에서 열린다. 송씨는 입주작가 7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작가와 기획자 간의 도출된 모티브를 키워드로 기존 작가의 작품들을 재해석했다.

이번 기획전은 전시뿐만 아니라 창작성 토리 7편으로 제작돼 인터뷰 아카이브집으로 출판, 시민들에게 배포된다. 또한 전시 기간 중에는 ‘감각의 빛깔들’(23~29일 오후2시)이라는 주제로 참여작가들의 전시 모티브로 관람객과 차담을 나누는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각 주제와 프로그램 일정은 ▲나수빈(모성·22일) ▲임주신(갈채·23일) ▲김연호(치유·26일) ▲김수진(사유·27일) ▲유상근(소통·28일) ▲김윤정(성장·29일) ▲정보은(자유·30일)이다.

문의 062-613-7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수진 작 ‘삶-순환’

신안선, 뉴미디어아트로 다시 향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홀로그램 상영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도자기를 계기로 알려진 ‘신안선’이 뉴미디어아트로 다시 향해를 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실에 가상 홀로그램 영상 ‘끝나지 않은 항해, 끝나지 않은 꿈’을 18일부터 상영

한다.

‘신안선’은 한국 수중 발굴 첫 보물선으로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건져 올린 도자기를 계기로 알려졌다. 당시 ‘세기의 발견’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 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안선’을 주제로 반투명 스크린을 활용한 3차원 입체(3D) 다중 영상 기법으로 만든 영상을 선보인다.

34m 규모의 중세 무역선 ‘신안선’ 옆에는 가로 22m·세로 3m 크기의 대형 투명 스크린을 비롯해 각종 영상, 음향 장비가 동원됐다. 영상에는 14세기

원나라 ‘칭위엔(慶元)’에서 출항한 신안선이 난파 될 때까지의 과정이 실감나게 재현됐다. 또한 ‘신안선 원형복원 홀로그램 영상’을 비롯해 해상실크로드, 다양한 무역품 등을 소개하는 ‘다면영상 미디어 콘텐츠’, ‘Q&A 터치스크린’ 등도 있어 해양역사의 체험이 가능하다.

이처럼 뉴미디어아트로 재현된 영상에서는 난파선의 잔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다양한 기술과 아울러 신해양 시대에 다시 향해하는 신안선의 역동적인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1-270-204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을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